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지금 미국의 반공화국적 대시정책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대규모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발판적으로 벌려놓고 북침전쟁의 불구름을 시시각각 몰아오고있는가 하면 자주와 정의 나라인 공화국을 《폐쇄적인 나라》, 《악의 나라》라고 헐뜯으며 모략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60여년간이나 지속되고있다.

트루먼으로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대통령은 십여번이나 바뀌었어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조미대결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초래한것이다. 미국은 자주적인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하기 위해 북침전쟁의 불도 지르고 경제제재와 봉쇄의 그물도 쳐왔으며 핵무기로도 위협하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도 매달리고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붕괴시키기 위한 파괴와 모략, 사상문화적침투책동 등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왔다.

그러나 그 모든것은 허사였다. 매번 패배의 쓰디

쓴 교배를 마신것은 미국이였다.

우리 민족의 분열에 직접 관여한 트루먼행정부는 전조선을 강점하기 위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수많은 추종국가군대까지 들이밀어 야만적인 파괴와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공화국의 영웅적군대와 인민의 불같은 항전에도

시간은 누구편에 있는가

쓰디쓴 참예만을 거듭하던 나머지 그 책임을 지고 제34대 미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고말았다.

트루먼의 뒤를 이어 대통령의 감투를 쓴 아이젠하워는 《영예로운 정전》을 떠들며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모험적인 《신공세》도 강행하였으나 인민군대의 드센 반타격을 받고 종당에는 정전협정이라는 수처사에 한복문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였다.

전후에도 미국은 정전협정을 판독하게 위반하며 침략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키고 1 000여개의 핵무기까지 끌어들이며 힘으로 공화국을 어찌보려 하였으나 뜻을 이룰수 없었다.

1968년 당시 미국대통령이던 존슨은 무장간첩선 《푸

에블로》호가 공화국의 령해일이 기어들어 정찰활동을 감행하다 조선인민군 해군에 나포되자 《군사적보복조치》를 떠들면서 항공모함을 비롯한 수많은 특해공군무력을 공화국의 연해에 끌어다놓고 위협해나섰지만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립장과 위력앞에 굴복하고 사죄문을 바로

시간은 누구편에 있는가

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되었을 때에도 당시 부쉬1세정권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떠들면서 《3.3.3붕괴설》을 내들리고 공화국에 압살의 총공세를 가하였지만 헛된 망상을 이룩할수 없었다.

《핵의혹》을 떠들며 위험천만한 북침작전계획을 공개하고 비밀리에 핵폭탄투하연습도 벌린 클린턴행정부도 결국에는 조미대화의 마당에 나옴과 공화국의 최고령도자께 대통령의 담보서한까지 보내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부쉬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공화국을 《악의 축》으

로 규정하며 핵선제타격명단에도 올려놓았었다. 《반테로》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치고 다음번 공격대상은 북조선이라며 전쟁소동에 매달렸으나 공화국을 어찌보지도 못하고 허무한 나날을 보내다가 권력의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오바마행정부는 또 어떠

한가.

그 무는 《기다리는 전

략》을 운운하며 적대시압살의 끈을 조금도 놓지 않고 대화가 아닌 대결일변도

에 매달렸다. 그러나 그의 집권 1기도 어떠한 《치적》없이 끝났다.

력사적사실들은 미국의 대조선압살과 침략야망을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력사의 쓰라린 교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있다.

지금 미국은 《핵문제》니, 《인권문제》니 하며 공화국을 어찌보려고 하지만 얻을것이란 하나도 없다.

공화국의 핵은 무엇과 흥

정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나라와 민족의 자주

권을 수호하기 위해 보유한 자위적인 억제력이다.

도 가려보지 못하고 마치도 《인권재판관》이나 되는듯이 그 더러운 입으로 인민의 참세상인 공화국을 헐뜯고있으니 정말 삶은 소 웃다 꾸레미더질노릇이다.

평양시 서성구역 석봉동 서광제

취고 달려나가 전쟁광신자들을 모조리 요정내고싶은 심정이다.

나의 심정이 이리할진대 최전연초소에 나가있는 우리 형님의 마음이야 오죽 뭉갯는가.

그런데도 우리보고 《도발》이니, 《자제》니 한다니 뻔뻔스러운 승냥이들이다.

세상의 정의는 미국이 아니라 12년제무료교육의 혜택아래 배움의 글소리 더욱 량이 시각에도 저 남쪽땅에서 핵합선들과 비행기 등을 띄워놓고 북침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는 미국놈들을 어찌 그냥 둘수 있단 말인가.

당장 이 손에 펜대신 총을

평양정평고급중학교 학생 류광호

편집증환자 미국의 운명은 뻔하다

얼마전 공화국은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이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세에 부합되게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조치들을 포기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릴것을 천명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르고 분주량을 피우는 것이 바로 미국인것이다. 평화적시기에 무고한 인민들은 또 얼마나 학살하였는가?

북과 남 모두는 아직도 효순이, 미선이를 장갑차로 깔아죽인 미군의 천인공도할 만행을 잊지 못하고있다.

이런 침략의 무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평화가 있을수 없고 인류가 재난을 피할수 없다.

문득 언젠가 한 외국인이 《미국이 없는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라고 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미운 나라, 나쁜 나라가 미국이어서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어린 처녀에게 기특했다.

(그때, 정말 미운 나라고 나쁜 나라다.)

지하전동차가 멈춰서서 것과 동시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벌써 통일일이

였다.

리경순

단방의 명종으로

얼마전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된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에 이어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교직원들의 사격경기가 진행된 소식을 듣고 격정을 금할수 없다.

유하 《잊지 말라 승냥이 미제물!》에 그러지 어머니의 피의 절규를 담아 한발한발 목표판에 명종탄을 퍼붓는 사격선수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도 내가 경기에 참가한것처럼 흥분을 억제할수 없었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우리 인민군대의 모든 방식은 《단숨에!》이다.

일단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만 떨어지면 고지점

삶은 소 웃다 꾸레미더질노릇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지구상에 유독 어지러운 오물을 좋아할뿐이라 보호중시하고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자유》와 《평등》의 화려한 양산품에서 살인과 강간, 마약, 변태 등 온갖 범죄오물들이 왕성하게 번식하고 생존하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며 《문명》과

령도 단숨에, 반미대결전도 단숨에,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상물건설도 단숨에이다. 《단숨에!》는 우리 군대의 정신이고 기성이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 죽고 물을 좋아하는자는 물에 빠져죽기마련이다.

지금 미국은 수많은 합선들과 병력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상륙작전이니 뭘니 하는바위외의 공화국을 반대하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피어느되어 날뛰고있다. 나는 조국의 해안을 지켜선 해안포병으로서 만일 미제가 퍼붓는 성조기를 날리며 우리의 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이 항공모함이란 구축함이는 《단숨에!》의 정신을 그대로 담은 멸적의 단방포란으로 해적의 무리들을 검푸른 바다에 소장해버리겠다.

조선인민군 교관 김 역

《향유》의 너울속에서 부패와 라락이 빠졌이 판을 치는 것이 오늘의 미국이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चे나라, 제 교향에서 갓은 악행과 추행을 일삼다가 주위사람들은 물론 친혈육들에게서까지 버림받고 쫓겨난 인간쓰레기들을 깨안고 《영웅》으로 추어올리니 미국이야말로 인간쓰레기들의 천국이다.

미물이 미물을 알아보고 바보는 바보와 벗을 삼는다

이런 생각을 하며 서있는 나를 놀래운것은 처녀애의 대답이였다.

《알아요. 그런데 미워서 우정 안 끊았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 나라에 나쁜짓만 한대요.》 처녀애가 얼마를 뻔히 쳐다보며 하는 말이었다.

(미워서 안 끊었다.)

나쁜 나라

생각이 깊어졌다. 그래, 얼마나 밉고 나쁜 나라인가. 세계를 돌아치며 물음질만 하는 미국.

특히 미국은 백수십년전부터 조선인민에게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무리이고 삼천리강토를 돌로 갈라놓은 장본인이며 남조선땅에 기여들어 갇은 못된것을 다하는 침략자, 략탈자이다. 과거에 한것이 모자라 아직까지도 공화국을 걸고들며 《위협》이요, 《도발》이요 하였고요 술한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이

이런

시	보	란	뜻	이
선군조선의 불패의 기상펼치며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무적의 위용안고 불뿔는 로켓들 최상의 수준 파시하였다	얼마나 궁지넘치는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싸울린 다종다형의 첨단로켓들 천하제일강국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 안겨주었거니	미국의 물물인가 핵잠수함, 핵폭격기, 핵미사일 가지가지 핵수단 다 꺼안고서도 단 몇발의 로켓발사를 두고 우들우들 떨어대는 가련한 미국	아무리 사납게 짖어대도 가공한 미국의 정상 《도발》과 《위협》나발 붙여댈수록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힘을 두려워하는 약자의 맥빠진 넋두리	김 송 립
하나 꼬리에 붙달린 승냥이 날뛰듯 자위적인 우리의 로켓발사를 두고 《도발》이다 《위협》이다 미친듯이 고아대며 걸고드는 미제	혼쫘이 나긴 낫구나 남의 땅에 와서 침략훈련 하면서도 《방어적》훈련이라 얼빠진 소리하더니 제 땅, 제 령해에서 진행한 우리의 자위적훈련 저들에 대한 《위협》이라 망발을 채쳐 대니	이 시각도 《독수리》전쟁연습에 발광하며 침략의 불구름 몰아오는 미국놈들 보란듯이 우리가 쏜 몇발의 로켓에 얼흔이 나가 백악관과 미국방성이 들썩하게 복닥소동 피워대는 미국놈들 보란듯이	가장 위력한 로켓들 팡팡 쏘아 미국놈들 아예 까무라치는 꼴 마음후련하게 통쾌하게 보고싶다 이것이 바로 공화국의 민심이다!	
이것이 과연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모략

최근 미국이 《북핵위협》을 요란스레 떠들며 공화국을 고립압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력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였고 그것으로 인류에게 핵합화를 들죄운 유일한 나라이다. 뿐만아니라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유린하는 평화의 교살자이다.

특히 미국은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지난 세기에 이어 오늘날까지 공화국에 대한 끊임없는 핵위협을 가해오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류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많은 핵타격수단들과 방대한 무력을 끌어다놓고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버럭이도 낮짝이 있다는데 이러한 미국이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하여 운운한다는것은 참으로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기만극, 광대극을 펼쳐놓고 있는 미국의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지금 미국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극도로 방해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무성 차관보는 《북핵문제》와 공화국의 정상적인 로켓발사훈련을 거론하며 북남관계진전을 가로막으려는 흉심을 드러내는 망발을 거리낌없이 체치였다. 미국이 공화국의 그 무는 《핵문제》와 로켓발사훈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은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저들의 범죄적기도를 가리우고 동족사이애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여 북남관계선을 가로막으려는 술책의 산물이다.

미국은 북남사이의 대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있다. 그래야 이 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저들의 무기도 많이 팔아 먹으며 군사적지배책동을 강화할수 있기때문이다. 얼마

바



미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철회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과 략탈로 새로운 주가 늘어날 때마다 국기에 별을 한개씩 더 첨가하기로 하였다.

1819년 플로리다를 강탈하여 메히코연안지역까지 령토를 확장한 미국은 1845년에 텍사스를, 1846년에는 오래곤지방을 그리고 1848년에는 메히코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려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아리조나 등 여러 지

역을 련이어 강점하였다. 이리하여 《독립》선포후 77만만인 1853년에 벌써 알라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현재의 미국본토를 전부 차지함으로써 미국의 주는 《독립》당시의 13개 주로부터 48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후 1867년에는 짜리로씨야를 강박하여 720만US\$의 값을 치렀으며 알라스카를 빼앗아냈으며 1897년에는 본토로부터 3 800km 떨어진 하와이를 또다시 저들의 한개 주

로 병합하였다. 미국성조기의 50개의 별은 바로 이렇게 생겨난것이다.

그후 미국은 에스빠냐와의 전쟁끝에 태평양지역의 팔도와 필리핀, 카리브해지역의 부에에도리코를 강점하고 꾸바를 예속시켰다.

특히 미국은 조선을 아시아침략의 발판으로 만들려는 야망밑에 19세기 중엽

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1866년 해적선 《서먼》호의 대동강침략, 1868년 해적선 《차이나》호의 아산만침략, 1871년 미아시아함대의 강화도침략 등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미국은 형성

이래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130년동안 114차의 대소침략전쟁과 8 900여차의 군사적간섭을 감행하였다. 해물더미우에서 솟아난 미

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과 략탈정책을 버리지 않았다.

조선전쟁, 월남전쟁, 레바논과 도미니카에 대한 침공, 1983년 그레네이더에 대한 무력침공, 1989년 파나마에 대한 침략, 1991년 페르샤만 전쟁, 1999년 이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강도적인 공습 등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에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21세기인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려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자랑하는 성조기는 침략과 전쟁의 상징이며 살인과 략탈의 대명사이다.

미국이야말로 침략과 전쟁을 생리로 하는 악의 화신이며 세계평화와 안정의 원

쥬이다.

강봉기